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내가 나를 모르면서 뭘 안다고 하겠어요

15면에서 계속
 부모님 선원에 인도하고 싶어요

문 오랫동안 씩씩합니다. 마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일체를 주인공에다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침이 너무나 많아서 실망과 근심이 저를 감싸고 있어서 가르침을 여쭙고자 합니다.
 죽이고 죽이고자 나선 길도 절립과 마장으로 하루 하루가 괴롭고, 더우기 저의 부모, 형제를 한마음선원에 인도하여 자성을 깨치고자 하여도 부모, 형제는 무명의 고정되고 더 고정된 길만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전 할 말이 나오지 않는군요. 자신이 되어서 무언가 조연을 하여 드러내... 믿지 않고서 무조건 부정하고, 당신이 아시는 그러한 믿음(꿈, 타신, 기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왜... 이리 주인공 공부보다 더하고 힘이 들고 하는지요. 불법에 열음이 녹듯이...

이 공부는
 정진이 우선
 마음으로
 지극히 하면
 전선과 전선
 이어져
 불이 들어옵니다

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절대 선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 생각이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절대선 상대나 하는게 붙겠습니까? 이걸 절대선 저건 상대대 하면 그건 벌써 사람이 되지요. 마음은 빛보다 빨라서 스위치 탁 올리면 그냥 불이 들어와 밝아지듯이 그렇게 활나게 통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용이 어떻다 느니 하는 말이 붙겠습니까? 목이 말라 냉장고 문열고 냉수 한모금 꺼내 마시는 데 따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체가 佛인데 중생 있는 까닭
문 이 지구상의 전정과 온갖 원인으로 고통받는 생명들 그리고 저자신의 모순을 생각하다 갑자기 조물주가 있다면 바보는 아닐테고 뭔가 뜻이 있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이면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나와가 하나라면 일체제불과 일체중생이 하나일진데 한분만 깨쳐도 일체가 다 깨치게 되는게 아닌지요...

그런데도 미혹한 중생이 있으니 이는 무슨 연유인지요...

답 본래 마음은 청정하고 여여하며 깨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무명에 덮여서 제 뿌리 불성을 외면하기 때문에 온갖 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내것' 하는 그 생각부터가 무명인데 그 무명이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고 있으니 일체 만물만생이 제각각으로 보여 너니 나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마음으로야 어찌 둘이라 하겠습니까. 몸통이는 제각각이라든 마음은 한 마음이니 만명이 깨우쳐도 부처는 한 부처입니다. 몸통이가 부처되는게 아니라 마음이 부처이니 한마음 한 부처입니다.



그림 · 최주현

도 있고 영계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업보성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평소엔 밖으로 꼬달리고 바깥대상에 의지하고 바깥대상을 믿고 그런다면 빈집과 같아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빈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벌레들이 드나들고 짐승들이 드나들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이 내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뱃을 짓이도 주장자가 있다면 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영적 존재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다 내 주인공의 나뭇이니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상으로 보게되면 그 순간부터 노예가 되고 말겁니다.

'둘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요
문 큰스님 설법에 둘이 아니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제 수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지 제가 모두 주인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보니 자동으로 둘로 보지 않게 되고 너와 내가 없게 됩니다. 주인공으로 보면 그냥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인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세 생생 큰스님을 따르겠습니다

답 모두들 들로 보니까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도 실은 이틀입니다. 일체가 그대로 부처요 한 마음인데 둘이니 하나니 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걸 따져서 아, 그게 그렇구나 해보아야 그전 어디까지나 빈 댕댕 돌리가 되지요.
 무조건하고 주인공을 믿고 놓고 관하는 가운데 내가 갖을 보아야 비로소 둘이 아닌 도리도 알게 되고 그러는 것이

다. 내가 죽어 비로소 나를 보는 공부요 내가 죽고 또 죽어서 본래 물이 아니며 더불어 나누는 도리를 아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 나를 보기전까지는 아무리 이론으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 보았자 가당치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확신하지도 못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이 공부는 살아서 이승 저승을 넘나들고 살아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활보하고 살아서 열반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몸종이가 죽어도 찻바퀴를 벗어날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실직등 가정 어려워요
문 저희 집안 애깁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안타깝고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지만 늘 진실하게 관하면 현실에 처해있는 어려움도 해결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집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실직당하시고 대신 어머니께서 가계를 하셨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계를 그만 두셨습니다. 가계는 매달 내야하는데 점포를 내놓았지만 계약이

한생각 일으켰으면 주인공을 믿고 턱 놓고 관하세요
 그래야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행동도 지혜롭게 나가게 됩니다

내 뿌리 믿고 관해 나부터 알도록 하세요 밖으로 꼬달리면 빈집같아 온갖 일 생겨

지혜가 물리 터지듯이... 이 불날 간절히 큰스님께 법문을 청하옵시다.

문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지요? 아버지 일로 안타깝다고 하셨던 분인것 같군요. 조금씩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아직 모르다해서 끝내 모르고 말까요? 내가 간절히 마음을 내는 데도 말입니다. 이 공부는 정진이 우선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참과 거짓 둘 아닌 도리

문 참인줄 알았더니 거짓이고, 거짓인줄 알았더니 참이되는, 즉 참과 거짓이 둘이 아닌 하나인 도리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한가끔 주인공(참 '나')에게 귀의합니다.

답 거짓이다 참이다가 붙질 않습니다. 저 프로펠라 돌아가듯이 참나도 쉬지 않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어디 던지 불을 자리가 있어 참이다 거짓이다 하리까. 그거 따지다가는 한데에 떨어지고 말니다.

용이 절대선을 근본삼는 이유

문 모두를 사랑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용의 근본은 절대 선을 바탕으로 삼는

나와 주인공이 둘 아닌지요

문 항상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생활의 지침으로 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체를 나로 보는 것과 주인공으로 보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체모두를 주인공으로 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답 일체를 주인공으로 보면 모두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니 나로 보는 것과 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둘이 아닌지요

문 일체는 한마음이 근원되어 생겼어라 하는 노래말 아시죠. 우주 삼천 대천세계 삼라만상이 다 한마음 주인공의 나뭇 아닌 것이 없으니 하나 둘이다 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일체를 나로 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심·공용·공식·공체로서 공생하고 있는데 자꾸 너니 나니하고 들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체가 둘이 아니기에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일체를 나로 보라'는 뜻

문 오늘 문득 생각한 것이 나 아닌 것은 모두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

니 행동하기가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하시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쭙습니다. 모두를 나와같이만 보라 하는 것도 그렇구요.

답 나와 남이 각각이다. 하나다 하기 이전에 나부터 알아야 남도 알고 세상도 알지 내가 나를 모른다면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볼까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나부터 알아야 둘이 아닌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따지기 전에 내 뿌리를 믿고 일체를 놓고 관하며 나부터 알도록 하세요.

큰스님처럼 될수 있는지요

문 큰스님께 삼가 죄송스런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고구정령히 법을 설하시는데도 잘못 알아듣는 것이 죄송스럽고 그런데도 엄청난 자비로 대하심에 지극한 마음을 올릴 뿐입니다. 하루살이가 천년을 사는 고고한 학을 알수 없듯이 저 또한 큰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살이나 고고한 학이나 성품에 있어 같다고하니

늘래고 반가를 뿐입니다.
 어찌 큰스님께서 그렇게 멋있고 인간적이고 능력이 있고 대자대비하신지요. 어느덧 큰스님은 저의 모델(이상형)이 되셨습니다. 저희들도 꼭 큰스님처럼 될수 있는지요.

답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부처 아닌게 없으니 그대로 한 마음이지요 한지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뿌리를 믿고 뿌리를 발견하세요. 육조스님께서 자신이 본래 청정한 내 어찌 알았으리까. 자신이 만법을 들고 밤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겠다고 고맙군요.

영의 지배 받게 되는 까닭

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빙의(영가에 지배 당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이는 보다 영적인 존재에 의해 계시를 받는다 하는데 이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이또한 뛰어 넘어야 할 경계인지요... 과거에 자기가 지은 것을 그대로 받는데 거기에 유전성으로 오는 것

지요. 그러니 실천이 제일입니다.

생명·의식 왜 생겨났는지요

문 언젠가 저의 어머니께서, "죽으면 차후도 없이사라졌으면 좋겠다. 영혼도 남기지 말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삶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지요.저도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 어리석은 질문인지도 모르나 생명이라는 것과 의식이라는 것들이 왜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비롯해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이 없었을텐데,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들 수고를 해야되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답 그렇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고 그 지극 지극한 병고 역년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죽는 공부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이루어 지지않고 집도 팔려고 내놓은 상태지만 매매가 잘 안되고 있는것 같아 제 마음이 답답해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큰스님 한마음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하시는 일에 도움도 되지않고 이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답 어머니 말씀대로 놓고 열심히 관해 보세요.

믿고 놓고 관하는데 무슨 조건이 붙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흔하들 믿고 놓는데 왜 잘 안되느냐 하는데 그건 벌써 될 바라고 한 것이니 몰록 놓으세요. 주인공! 되게 하는 것도 너, 안되게 하는것도 너, 너 밖에 없어! 할때 무조건이 되겠지요. 앞으로 가는 것만 법이고 뒤로 가는건 법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건 맛고 왼쪽으로 가는건 틀리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놓고 관하세요.

가끔은 안목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SIN 288쪽
 값 6,000원
 어시어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앞이나 인터넷 부디피아(http://www.buddhapia.com)로 연락 바랍니다.